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리베르소의 아르데코 스타일이 떠오르는 기술력과 미적 아름다움의 진귀한 결합

- *매뉴팩처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예술 공예 기술*
- *칼리버 179의 예술적 디자인을 담아내기 위해 섬세하게 재설계된 복잡한 리베르소 케이스*

황금비율의 조화로운 비율에 따라 디자인된 리베르소는 예술적 표현을 위한 공간이 되어주는 타임피스입니다. 2023년, 예거 르쿨트르는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를 선보입니다. 칼리버 179에 미학적 아름다움을 더한 이번 모델은 메종의 시그니처인 다축 투르비옹의 탁월한 기술력과 예술적 장인 정신을 결합했으며 매뉴팩처의 진귀한 수공예 기법인 메티에 라르(Métiers Rares®) 장인들의 탁월한 예술성을 활용하여 타임피스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독창적인 기술력

최고 수준의 기계적 정교함을 보여주는 칼리버 179에는 예거 르쿨트르 엔지니어가 리베르소만을 위해 개발한 4세대 다축 투르비옹이 장착되었습니다. 리베르소의 직사각형 케이스의 형태에 맞는 무브먼트인 동시에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슬림한 무브먼트는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링 위업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칼리버 179는 각 다이얼에 다른 시간대를 표시하는 듀오페이스 무브먼트로 뒷면 다이얼에는 세컨드 타임존에 대한 24시간 인디케이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두개의 축을 중심으로 매혹적인 원무를 펼쳐 보이는 자이로투르비옹의 구조는 매우 복잡합니다. 총 123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초경량 티타늄 케이지와 볼 베어링에 설치된 페리페럴 캐리지가 서로 다른 속도로 수직 회전합니다. 내부 투르비옹 케이지는 16초마다 360도 회전하고 페리페럴 캐리지는 분당 한 번씩 회전합니다. 이 페리페럴 캐리지는 스몰 세컨즈 기능을 제공하며 투르비옹을 둘러싼 링에 표시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메커니즘의 중심에서 힘차게 박동하는 블루



컬러의 반구형 밸런스 스프링과 자이로랩 밸런스 '휠'의 독특한 이중 앵커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요소 모두 더 뛰어난 정확도와 기계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열정을 잇는 매뉴팩처의 엔지니어들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밸런스 스프링을 제작해왔으며, 자이로투르비용 중심의 빈 구체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반구형 밸런스 스프링은 매우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미적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자이로랩의 이중 앵커 형태는 공기 마찰을 줄여 시간 측정 정확도를 더욱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브릿지가 아닌 볼 베어링 링으로 투르비용 메커니즘이 지지되기 때문에 플라이 자이로투르비용은 마치 리베르소의 전면 다이얼과 후면 다이얼 사이 공간에 아무런 지지 수단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효과는 투르비용 표시창 바로 아래, 시계 크래들에 위치한 폴리싱 블루 래커 디스크의 거울 같은 표면에서 반사되는 반짝임으로 더욱 강조됩니다.

메종의 장식 예술을 보여주는 쇼케이스

리베르소 히브리시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의 핑크 골드 케이스와 풍부한 대비를 이루는 유광 다크 블루 래커는 시계의 앞면과 뒷면 다이얼 모두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듀오페이스 무브먼트를 갖춘 리베르소는 두 가지의 뚜렷한 개성이 돋보입니다. 앞면 다이얼에서는 오리지널 리베르소 디자인의 아르데코풍 기하학적 패턴을 연상시키는 얇은 골드 컬러의 선으로 이루어진 격자무늬가 블루 래커 배경과 대조되며 시간 디스플레이의 질은 그라데이션 블루 래커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 선들은 사실 래커 세공을 위해 표면을 파냈을 때 칼리버 플레이트 메탈에 남게 된 매우 미세한 홈(rib)입니다. 이는 매우 정밀한 작업을 거쳐 완성된 디테일로 풍부한 컬러와 정확한 깊이감을 얻기 위해 메탈 홈 사이에 래커를 수작업으로 도포 후 표면에 광택을 더하기 위해 폴리싱 처리하여 골드 컬러의 선 디테일과 수평을 이루도록 완성하였습니다.

뒷면 다이얼의 스켈레톤 처리된 아워 미닛 링과 이를 지지하는 브릿지의 섬세한 트레이서리(tracery) 장식은 블루 래커로 마감되어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배가시키며 다양한 무브먼트 부품이 지닌 골드 톤 및 마이크로 블라스팅의 부드러운 실버 텍스처와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기술과 전통의 매혹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뒷면 다이얼의 장식은 수공 챔퍼링 및 래커 세공이 조화를 이룬 레이저 스�কেleton 구조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위치메이킹 예술과 과학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면서도 전통을 존중하고자 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신념을 보여줍니다. 자이로트루비용의 케이스에만 약 14 시간의 챔퍼링 작업을 필요로 하며 반대편에 위치한 브릿지 한 개의 시그니처 형태를 위해 8 시간이 작업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는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을 추구하는 그랑 메종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섬세한 재설계를 통해 탄생한 아이코닉한 케이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리베르소 케이스의 기하학적인 직선형 구조와 황금비율에 기반한 조화로운 비율은 특유의 슬라이드 및 회전 메커니즘을 통합한 설계의 복잡성을 반영합니다. 크래들 내부에는 블루 래커 디스크에서 뿔어나가는 선레이 패턴이 깊숙이 인그레이빙 되어 있습니다. 다이얼 위아래의 시그니처 가드룬으로 강조되는 강렬한 아르데코 라인이 장식된 케이스는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에 장착된 두 다이얼의 복잡한 장식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자이로트루비용을 포함한 382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복잡한 칼리버 179 무브먼트는 넉넉한 사이즈의 케이스가 필요하지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는 전체 두께 13.63mm의 새롭게 디자인된 세련된 리그를 갖추어 매우 우아하고 착용감이 뛰어난 타임피스입니다.

예술과 기계 기술의 진정한 애호가들을 위해 제작된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의 한 지붕 아래 모인 180가지 기술과 최고의 경지에 오른 고도로 숙련된 장인들 간의 놀라운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진귀한 작품입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히브리스 아티스티카 칼리버 179

케이스: 핑크 골드 750/1000(18 캐럿)

크기: 51.2 x 31mm, 두께 13.6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179



기능: 양쪽 다이얼의 시, 분, 후면 다이얼에 24 시간 인디케이터가 장착된 세컨드 타임존, 자이로투르비용(전면 및 후면 다이얼에서 모두 확인 가능)

파워 리저브: 40 시간

앞면 다이얼: 블루 래커

뒷면 다이얼: 블루 래커 코팅의 스켈레톤 구조

방수: 30m

스트랩: 다크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제품 번호: Q39424E1 -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황금 비율 소개

예거 르쿨트르는 아르데코 스타일이 한창인 1931 년, 황금비율에 기반하여 리베르소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미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비율로 알려진 황금비율은 그리스 글자 ϕ (파이)로 표현되거나 1.618 로 정의되는 신비로운 숫자입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예거 르쿨트르의 리베르소는 황금비율을 잘 보여주는 타임피스입니다. 이후 9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리베르소의 케이스는 다양한 형태로 재해석되었지만, 오리지널 디자인의 비율만은 컬렉션을 정의하는 상징으로 남아 오늘날까지도 '리베르소 = 황금비율'이라는 공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